

건강 칼럼

열에 의한 피부 이상 - 화상

연 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온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피부의 증상 질환으로 화상, 찰과상, 열성 홍반 등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화상에 대해 알아본다.

화상은 주로 열에 의해 생긴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의 손상이다. 화상은 신체에 열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데 그 온도, 노출 시간, 피부의 두께, 열의 종류 즉 햇빛이나 불꽃, 끓는 물, 뜨거운 그릇,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고압전류 등에 따라 피부의 손상 정도가 달라진다.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피부의 손상과 화학적 변화를 겸하므로 부식이라고도 한다.

화상의 손상 기전은 열에 의한 세포단백의 변성과 응고 효소의 불활성화 등으로 볼 수 있다.

화상으로 인해 피부 조직에서 여러 염증 매개물질들이 방출되고 인체의 방어 장벽이 무너지면서 면역 체계 이상이 발생해 감염의 기회가 높아진다.

화상의 증상은 조직 손상의 침범



김 이 권 구암한의원장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눈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표피성 화상으로 화상부위에 홍반(피부의 붉어짐)이 주 증상으로 약간의 부종과 따끔한 통증이 동반된다. 물집(수포)은 생기지 않으며 피부 감열에 대한 방어력은 유지된다.

적절한 생활 관리로 수 일 내에 자연치유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껍질이 벗겨지기도 한다. 주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열에 순간 접촉하거나 노출될 때 생긴다.

2도 화상은 표피 전부와 진피의 일부를 침범하는 화상으로 표재성

2도 화상은 홍반, 부종과 더불어 대부분 물집(수포)이 발생한다. 수포를 터트리면 삼출액(진물)이 나오며 붉은 색은 진피가 보인다.

심재성 2도 화상은 깊은 층에서는 모세혈관의 혈류 소실로 창백해지고 감각이 없어진다. 따라서 통증을 못 느끼고 압력만 느끼는 상태가 된다. 주로 끓는 물이나 삼포, 화염, 기름 등에 의해 발생한다.

3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의 완전한 파괴와 피하 지방층까지의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 화상부위의 조직과 시가 심해 부종이 심한편이지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말단이 파괴돼 통증은 별로 없다. 괴사된 피부는

죽은 조직 즉 가피를 형성하는데 2~3주 경과후 가피가 탈락되고 흉터(육아조직)가 생긴다.

화상의 치료는 침범깊이에 따른 손상 정도(1, 2, 3도 화상)와 화상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화상 범위는 '9의 법칙(rule of nine)'으로 그 체표면적을 결정하는데 '9의 법칙'은 우리 몸의 체표면적을 9% 혹은 그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목과 머리를 9%, 몸통 전면 18%, 상지 좌우 각각 9%, 하지 좌우 각각 18%, 회음부 1%로 계산한다. 30%이상 2도 화상, 10%이상의 3도 화상, 호흡기를 침범한 화상은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

보통 1도 화상의 경우 얼음물 등으로 차갑게 해준다. 2도 화상의 수포는 자연적인 보호막이므로 터트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너무 팽팽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무균 상태에서 천자할 수 있다. 2차 감염에 유의하며 단 백색 소실과 쇼크에 주의해야 한다. 화상 환자에게는 충분한 전해질과 수분을 공급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기고문

교통사고 발생시 반드시 2차사고 대비해야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고 소식들은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중에는 찰나의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 더더욱 마음이 무거운데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속도로 2차 사고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가벼운 접촉 사고를 수습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끈경에 빠진 다른 운전자를 도우려다 사고를 당하는 등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7명, 치사율도 52.7%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2차사고는 주로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고장 난 자동차를 수습하기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탑승자가 뒤에 오던 차량에 치이면서 발생한다.또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68%가 야간에 사고를 당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주간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이 정차하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후 삼각대 또는 불꽃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사고지점에서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사고를 당할 수 있는



김 덕 진 전북경찰청 경찰관리팀장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갓길에 정차 하더라도 어두운 밤이나 운전자가 보지 못했을 경우 2차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안이나 옆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차량 고장 등의 이유로 갓길

로 이동시킬수 없을 때는 일단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사고다.또 한가지, 제도 및 안전장구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등은 부피가 커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필수품목도 아니다.반면 일본은 화재위험이 높은 불꽃신호기를 LED(발광다이오드) 비상신호등으로 대체하고 차량출고 필수품으로 규정했다. 이를 자동차검사 항목에도 포함했다. 우리도 차량제작 과정에서 안전장구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용이 불편한 불꽃신호기와 안전조끼는 LED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지역 발전을 최고 관심사로

지역 발전을 최고 관심사로 해야겠다. 지역 발전은 예산의 역수가 말한다. 그러므로 7조원대 예산으로는 갈 길이 멀다.지역의 낙후를 생각하면 8조원대 예산이라도 만족을 말할 수 없다. 현 정부도 역대 전임 정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이 확인된 지금이다. 탄소 산업을 위해 1년에 1조원 씩 지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쪽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북 경제가 몰락한 지 오래 됐지만 정부와 정계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급할 게 하나도 없는 변방의 일로 무시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도 다만 무성했을 뿐이다. 그후 진척 보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최근의 일만 해도 전북이 광주와 전남에 비해 후대를 당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전북 혁신도시의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빨간불인데 광주 전남 쪽의 한전공대 설립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제3금융도시 지정도 새만금 공항건설도 새만금 신행만도 이렇게 백년하청이어서는 곤란하다. 전북의 주

요 현안들이 줄줄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정부 측 인사의 발언에 따라 다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들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인데 결단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예전과 달리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도지사가 예산 확보 총력전을 밝혔기에 당부할 것이 있다. 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속도감을 보여야겠다.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능력 발휘가 있어야 한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왔거나 무수 여러고 진취적인 행보가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스스로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반짝 생겼다가 꺼지는 일자리 미덥지 않아

전북도의 일자리 대책이 달라져야겠다. 반짝 빛났다가 꺼지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덥지 않다.전북도가 먼저 잘 알고 있으려나와 일자리 창출이아발로 인구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두운 것 투성이다. 얼마전에 일자리가 늘고 취업률이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계속 노력해야겠다. 일자리 성과가 괜찮다지만 그것은 공감대가 넓지 않은 보고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부끄러운 기록을 빨리 떨쳐버려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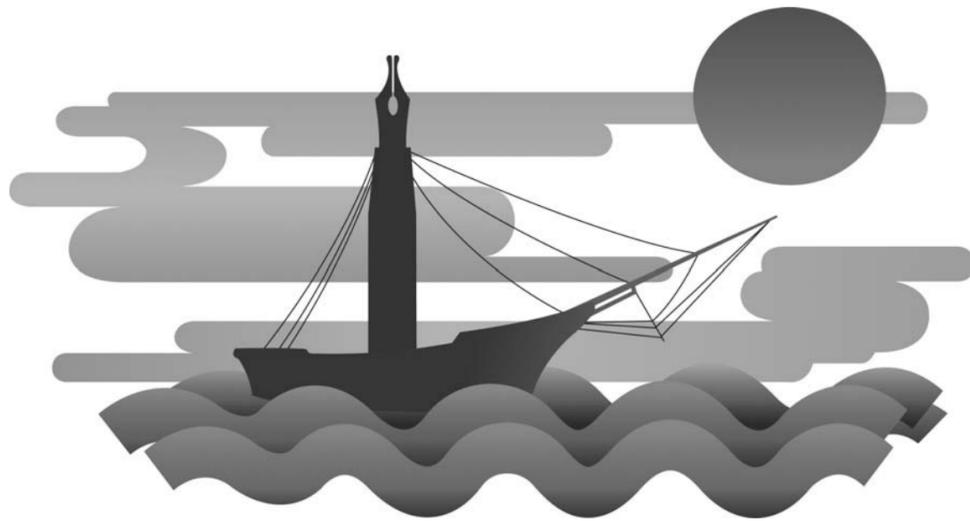
정말이지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여전히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모범적으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나와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질이 예전보다 못한다. 청년층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은 허튼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계속 추구해 마땅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전북도가 묵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함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의 현실과 관련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갈수록 뒤쳐지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짝 빛났다가 꺼지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덥지 않다. 전북도는 보다 일한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